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성막인 교회생활에서 성전인
교회생활로 주님과 함께 전진함**

11/21 월요일

아침의 누림

히 6:1

1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엡 2:21-22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빌 3:14-15

14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쫓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은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어떤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여러분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골 1:12-13

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13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골 2:6-7

6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7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 나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유월절로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이집트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이집트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나와 이제 광야에 있으면서 계시를 받고 성막을 건축하며 만나를 누리고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건축물인 성막을 갖는 것은 확실히 좋은 일이지만 성막은 견고함이 부족했다. 성막은 기초가 없어서 이동하기에 편리했다. 성막을 건축할 때는 돌이 아닌 나무만 사용되었다. 우리는 혼의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누리지만, 견고한 기초도 없이 떠도는 교회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 우리는 광대한 땅 곧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가득한 땅에서 거닐고 있는가? 교회생활이 성전처럼 견고하게 건축되었는가? (위트니스 리 전집, 1979 년, 1 권, 생명 메시지 2, 57 장, 418-41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 안에는 교회생활 안에서 이미 경험한 것보다 더 높은 무언가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다. 우리가 느끼는 불만족은 참으로 우리의 불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불만족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좋은 땅 안에서 '성전 교회생활'을 갖기를 갈망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 내셔서 좋은 땅 안으로, 혼에서 이끌어 내셔서 영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신다!

한 면에서 우리는 교회생활 안에 있는 것이 기쁘다. 다른 면에서 우리는 더 풍성한 어떤 것을 갈망한다... 우리는 참으로 '성막 교회생활' 안에 궤를 가지고 있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인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에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9 년, 1 권, 생명 메시지 2, 57 장, 419-420 쪽)

우리는... 성막보다 성전이 더 크고 더 안정적이며 더 무게가 있었다는 것을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도 새롭게 되었고 그 치수가 커졌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제단과 물두멍과 임재의 떡 상과 금등잔대와 분향단이 모두 다시 만들어졌고, 대부분 그 치수가 커졌다. 성막에서 제단은 그 너비와 길이가 오규빗이었고 높이는 삼규빗이었지만, 성전에서는 제단의 너비와 길이가 이십 규빗이었고 높이는 십규빗이었다. 성막에는 하나의 금등잔대만 있었지만, 성전에는 열 개의 금등잔대가 있었다. 성막에는 하나의 임재의 떡 상과 하나의 물두멍이 있었지만, 성전에는 열 개의 임재의 떡상과 열 개의 물두멍이 있었다.

십자가와 성령에 대한 우리의 체험, 우리의 생명과 빛과 기쁘게 받아들여짐과 달콤함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반드시 새로워지고 깊어지며 확대되어야 한다. 성전의 확대는 교회가 강해지는 것을 상징하며, 성전의 기구들이 새로워지고 확대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의 체험이 새로워지고 확대되는 것을 상징한다.

이 그림은 우리의 영적인 체험이 반드시 교회의 신장과 어울려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제단의 크기(즉 십자가에 대한 체험)도 반드시 같은 비율로 증가해야 한다. 복음 전파도 더 큰 충격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들어올 때 큰 가치를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는

이들의 헌신도 또한 증가해야 한다. ... 낯물두멍도 확대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의 빛 비춤과 성령의 씻음이 반드시 더 강해지고 더 자주 발생하며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 우리의 생명 공급과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임재의 떡 상과 금등잔대도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금향단(즉 우리와 하나님의 교통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체험)도 반드시 강해지고 증가하며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시지만 교회는 반드시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확대되어야 하며, 성도들의 영적인 체험도 반드시 점차적으로 새로워지고 확대되어야 한다. (교회 건축의 이상, 5 장, 116-118)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9 년, 1 권, 생명 메시지 2, 57 장

11/22 화요일

아침의 누림

엡 1:22-23

22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계 1:11

11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게, 곧 에베소에, 서머나에, 버가모에, 두아디라에, 사데에, 빌라델비아에, 라오디게아에 보내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엡 4:4, 12-16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12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14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고전 12:14, 18

14 몸은 한 지체만이 아니라 많은 지체입니다.

18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분께서 뜻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의 목표에 도달하시기 위한 절차일 뿐이다.

에베소서 1 장 22 절과 23 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며,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여러분처럼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귀히 여긴다. 그러나 내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귀히 여기는 것은 어떤 목적 때문이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나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끄는 절차이다. 우리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있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으로 인도되고 이끌릴 수 있다. (위트니스리 고봉 메시지, 9 권, 석임에 관한 실제적인 교통, 1 장, 14-1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의 처소와 관련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한 면으로 그것은 땅 위에 있고 일시적이며 이동하는 성막으로 예표되었다. 성막은 백성이 여행하는 것을 따라 움직였다. ... 그러나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성막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성막은 이 땅 위에 있는 교회 혹은 여러 지방에 있는 교회를 예표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인 곳에는 교회가 있고, 따로따로 흩어져 있으면 교회가 없다. 이것이 성막 방면의 교회이다....

성전은 성막과 달리... 왕국을 위해 건축되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의 중심이었다. 성전은 유일하고 영원하며 견고했다. 나라는 정치적으로 나뉠 수 있어도 성전은 나뉠 수 없고 오직 하나만 있을 수 있다. 한 면으로 교회는 여러 지방에 나타나며, 또 한 면으로 교회의 영적 실재는 한 몸이고 유일하며 영원하다.

사역이 해야 할 일은 교회가 마땅히 지녀야 할 증거를 회복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다.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니다. 오늘날의 길은 곧 교회의 길이며, 이 길에서 우리는 주께 행하거나 부주의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12 장에 묘사된 몸은 한 지방에 있는 교회가 가져야 할 증거이다. 이 증거는 바로 몸의 증거이다. 이 몸 안에서는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고전 12:21), 모든 부분이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 오늘날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반드시 이 몸의 실재를 표현하는 증거여야 한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반드시 어떤 지방에서 표현되는 실행적이고 실지적인 몸이어야 한다.

오늘날 이 땅에서 교회는 하나이며, 교회 사람들은 세상에서 분별된 사람들이다. 교회의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모두 자신을 헌신하며, 모든 물건을 공용한다. 이러한 합당한 생활 가운데 에베소서 4 장에 열거된 사도와 신언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자 및 교사라는 은사들이 산출된다.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은 비록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여전히 한 교회 안에 함께 있다. 이것은 전류가 오직 하나이지만 여전히 각처로 전달되는 것과 같다. 비록 다양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지방의 범위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교회 자체는 여전히 하나이다. 교회는 하나(eness)의 증거를 위해 존재한다. 교회가 소유한 생명은 하나(eness)의 생명이다. 이런 이유로, 모든 교회들은 서로 간에 마땅히 하나여야 한다. 비록 고린도와 에베소 및 다른 곳에서 교회가 나타났지만, 그들은 모두 한 교회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이다. (워치만

니 전집, 57 권, 워치만 니 사역 재개 메시지 기록, 5 장, 51 쪽, 4 장, 48 쪽, 5 장, 5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니 전집, 57 권, 워치만 니 사역 재개 메시지 기록, 4-6, 20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64 년, 4 권,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 11 장

11/23 수요일

아침의 누림

요 2:19, 21

19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여러분이 이 성전을 허십시오. 그러면 내가 삼 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21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고후 6:16

16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어떻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인데, 하나님도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다니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롬 6:6

6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벤전 2:5, 24

5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24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시어 상처 입으심으로써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요 11:25

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요 12:24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2 장에는 첫째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례 (1-11 절)가 있고, 이어서 성전을 다루는 사례 (12-22 절)가 있다. 성전을 다룬 것이 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것 뒤에 나오는가? 이것은 생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생명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있다. ... 성전을 다룬 사례에서 우리는 생명의 목표이며, 목적인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본다.(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7 장, 10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주 예수님은 그분의 대적자들에게 그들이 이 성전을 혈면 그분께서 삼일 만에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 2:19). 주님은 "여러분은 나를 죽게 하고 나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일 것이지만, 나는 삼 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

예수님의 물질적인 몸은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혈렸다.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셨을 때 물질적인 몸을 입으셨다. 요한복음 1 장 14 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물질적인 몸이 장막이었음을 분명하게 본다. 요한복음 2 장에 따르면, 그분의 물질적인 몸은 또한 성전이었다. 사탄은 예수님의 물질적인 몸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몸을 혈어 버리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리고 사탄은 유대인들을 통해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혈렸다.

사탄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물질적인 몸을 혈어 버린 후, 그분의 몸은 무덤 안에 놓고 거기서 안식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일어나셨을 때 친히 그분의 죽고 장사된 몸을 세우셨다. 십자가에서 혈린 예수님의 몸은 작고 약했으나,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광대하고 능력이 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전인 그분의 몸은 훨씬 더 큰 규모로 일으켜 세워졌다. 원수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혈어 버린 몸은 단지 예수님의 몸뿐이었지만, 주님은 부활 안에서 그분 자신의 몸을 세우셨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과 합한 모든 이들을 일으키셨다(벧전 1:3 엡 2:6).

일단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가 손상되고 혈린다고 해도, 우리는 부활 안에서 그 교회가 이전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주 예수님은 항상 원수보다 우세하시다. 사탄이 하는 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때 우리는 너무 절박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평안하라. 사탄의 활동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아셨을 때, "오, 아버지, 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십시오. 아버지, 저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나를 죽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 뒤에 나는 증가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을 확신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누구도 주님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없다. 원수가 애를 쓸수록 그는 주님께 어떤 것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제공할 뿐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항상 부활 안에 있다. 주님께서 삼 일 만에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부활 안에서 그것을 세우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때로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기적들이 무엇인지 보여 달라면서 우리에게 도전한다. 우리는 기적들을 행하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겨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나타나실 것이다. 이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데 필요한 기적이며 표적이다. 교회를 건축하는 유일한 표적은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이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삼일' 안에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의 과정 가운데서 그분의 몸을 건축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몸의 대부분이 이미 세워졌지만, 주님의 몸의 어떤 지체들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은 지금도 부활의 과정 안에 있다.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오직 일부분만 변화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만 부활했음을 의미한다. 주님은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지금도 부활의 과정 안에 있다.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삼 일'이라는 부활의 과정

안에 있다.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7 장, 107-11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1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상), 2 장

11/24 목요일

아침의 누림

마 12:42

42 남방 여왕이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유죄판결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대상 28:11-12

11 다윗은 성전 주랑과 건물들과 창고들과 위층 방들과 내실들과 속죄 덮개를 둘 건물의 모형을 아들 솔로몬에게 알려 주었으며

12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모든 모형, 곧 여호와와 그의 집 뜰들과 돌레의 결방들과 하나님의 집의 보물 창고들과 봉헌 예물 둘 보물 창고들의 모형을 알려 주었다.

마 16:18

18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왕상 5:5

5 이제 나는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네 뒤를 이어 너의 보좌에 앉힐 너의 아들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빌 1:19

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엡 1:17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에 많은 왕이 있었지만, 매우 합당하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은 다윗과 솔로몬 두 왕밖에 없다. 다윗은 부활 전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다윗은 젊어서부터 고난을 받았고, 싸우는 왕으로서 대적을 패배시키고 땅을 얻었으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을 마련했다(대상 18:7-11, 22:2-5, 14-16). 솔로몬은 부활 안에서 승리한 왕으로서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이다(왕상 5:2-5, 마 16:18). (위트니스리 전집, 1966 년, 3 권,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교회의 실재, 7 장, 260-26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교회의 합당한 청사진을 계시하셨다... 이것은 성전의 예표와 일치한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도안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에게 계시되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도안이 다윗에게 계시되었다 할지라도, 그 도안의 집행은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수행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교회의 청사진을 계시하셨고, 이제는 부활

안에서 교회의 청사진을 우리 안에서 집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마태복음 16 장에서 우리는 계시를 보고, 사도행전 2 장에서는 그 계시에 따른 집행을 본다. 계시하시는 분은 다윗으로 예표되신 그리스도이시고, 집행하시는 분은 솔로몬으로 예표되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각 사람은 모두 자아를 거절하고 부활의 영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규율 때문에 연장한 이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말미암아 복종해야 한다. 또한 교리에 근거해서 연장한 이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 안에서 복종해야 한다. 교회 형제자매들로서 우리는 마땅히 장로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두신 권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법을 범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영 안에서 생활하지 않고 그저 교리에 따라 행하기만 한다면, 별 유익이 없을 것이다. 다윗이 본 계시를 솔로몬이 집행했다. 이것은 성경에 계시된 교회에 관한 계시는 부활의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회의 청사진은 전적으로 부활의 영께 달려 있다. 교회의 청사진은 간단히 말해서 부활의 영이다. 우리가 부활의 영 안에서 생활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의 실재가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 즉,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도안의 실재가 우리 안에서 집행된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에게 다윗의 도안은 있지만 솔로몬의 집행이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우리에게 계시와 교리는 있으나 부활의 영의 표현은 많지 않다.

우리는 단지 교리만 붙잡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의 영이신

주님께 우리를 파쇄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우리는 교리를 단지 기록된 지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되고, 성경적 근거를 단지 안전장치로만 삼아서도 안 된다. ... 성경에 계시된 예표들에서 우리는 다윗에게 계시된 도안을 반드시 솔로몬이 집행해야 함을 볼 수 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계시는 오직 부활의 영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부활의 영 안에서 생활할 때,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나 교회 안에서 논쟁하지 않을 것이며 그 대신 영적인 실재를 갖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기꺼이 성령의 권위에 복종하고자 한다면, 논쟁을 시작하려는 순간 곧바로 우리의 자아와 육체를 인식할 것이고, 기꺼이 성령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 주님, 저는 논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틀렸으므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것은 기쁘지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 시점에서 교회의 청사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다윗이 받은 계시를 집행하는 것이다. (교회의 세 방면, 1 권, 교회의 의의, 16 장, 304-305, 308-31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교회 건축의 이상, 3, 5-7, 9 장

11/25 금요일

아침의 누림

왕상 6:7

7 집이 건축될 때, 채석장에서 떠 내져 미리 손질된 돌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집이 건축되는 동안 집 안에서는 망치나 도끼나 다른 어떤 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갈 6:17-18

17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님들. 아멘.

행 9:31

31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에 있는 교회는 평안을 누리며 건축되어 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는 가운데 전진하여, 인수가 늘어났다.

엡 4:29-30, 32

29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 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30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

32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롬 8:11

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고후 6:16

16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어떻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때문인데, 하나님도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다니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 3:12

12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성전 건축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도안이고, 그 다음은 헌신이다. ... 성전 건축을 위해 사용된 각각의 돌은 원칙상 이미 산에서 떼 내져 손질된 것이었다(왕상 5:15-18, 6:7). 미리 떼 내지고 다듬어진 돌들을 하나씩 쌓아 올릴 때 건축은 완성된다. 다시 도끼질하거나 망치질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망치나 도끼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성전은 조용한 가운데 건축되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건축되고 기능을 나타낼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다름을 받아야 한다. 어떤 형제가 나이가 보다 많고, 일정 수준의 지식과 재능을 가졌고, 도덕성을 갖추고 평판이 좋다고 해서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좋은 돌일 수는 있겠지만, 그의 날카로운 모서리는 하나님께 다름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된다면, 교회 안에는 망치나 도끼가 내는 소음으로 가득할 것이다. ... 만일 어떤 교회 안에 소음이 없다면, 이 교회는 매우 강하고 건강한 것이다. (교회의 세 방면, 1 권, 교회의 의의, 16 장 31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원칙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떼 내진 돌이어야 한다. 만일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다른 그리스도인 단체에서 온 형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 함부로 비평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할 때, 책임 형제는... 소음을 내어서는 안 된다. 만일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 형제가 말한 후 모두가 소리를 내지 않고 입을 닫는다면, 그의 목소리는 분명 짧은 시간 안에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형제가 말한 후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반응한다면, 말은 갈수록 더 많아질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께 충분히 파쇄되지 않고 깊은 공과들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비평하는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은 즉시 흥분하여 목에 힘줄을 세우고 반박하면서 그들과 싸우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참되게 공과를 배운 사람이라면, 결코 다른 사람과 변론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즉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다. 만일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기꺼이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그는 힘을 다해 그가 배운 것을 그 영의 인도를 따라 그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속으로 다른 사람들이 오직 변론하고 반대하며 비평하려고만 하는 것을 느낀다면, 그는 즉시 하고자 하는 말들을 거두고 잠잠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참으로 공과를 배운 사람이다. 즉, 그는 이미 산에서 도끼와 망치로 떼 내져 손질된 것이다.

모든 교회 봉사에서 우리는 다만 찬양과 감사와 노래만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합당한 소리이다. ... 우리는 간혹 주님의 상 집회에서 누군가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뒤집어 얹는 기도를 하는 것을 듣게 될 때가 있다. 이것은 그 교회에 참된 건축이 없음을 보여 준다. 교회 건축에는 빼거덕거리는 소음이 없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이 비평하고 판단하며 반대하는 것을 들을 때, 물러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즉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서 잠잠히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서 소리가 나지 않을 때가 다른 사람에게서도 소리가 나지 않을 때이고, 우리에게서 소리가 날 때가 다른 사람의 소리가 우리보다 더 크게 울릴 때이다. 성전에서는 망치로 치는 소리나 때리는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 성전은 조용한 가운데 건축된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한 공과를 배워야 한다.

성전 건축, 즉 교회 건축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부활 안에서 생활해야 하고, 헌신된 생활을 해야 하며, 하나님께 다름을 받아야 한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는 성전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렸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복종했으며, 하나님의 다름을 받아들였다. (교회의 세 방면, 1 권, 교회의 의의, 16 장, 316-31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1 년, 4 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 17 장

11/26 토요일

아침의 누림

시 27:4

4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출 33:14

14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시 95:1-2

1 자, 여호와를 향해 우리 기뻐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분을 향해 즐거운 소리를 내세.

2 감사함으로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 찬양시로 그분을 향해 즐거운 소리를 내세.

시 100:1-2

1 온 땅아,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2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섬기고 기쁜 노래 부르며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거라.

창 2:9

9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였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계 2:7

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요 14:2, 23

2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관념을 바꾸어,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것만을 갈망하신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일체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얼마나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누렸는가의 문제이다. 우리는 이 비결을 배워야 한다. 언제나 한 가지 일, 즉 자주 우리의 내적 존재를 돌이켜서 하나님 자신을 누리기를 배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누리고 흡수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모든 것, 심지어 자녀의 병을 잊어버릴지라도 그분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때, 그분은 오히려 상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나는 너의 '나사로'가 병든 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나는 너의 이런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네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가겠지만, 억지로 나더러 가라고 하지 마라. 나는 그가 죽은 후에야 가겠다. 단지 죽을 뿐 아니라 장사되고 냄새가 나야 가겠다.' 주님은 항상 이렇게 하신다. 주님의 의도는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유일한 의도는 우리가 그분을 흡수하고 누리를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누리는 길, 2 장, 34-35 쪽)b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먼저 삼십 분이나 한 시간 정도 주님을 접촉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 당신은 너무나 사랑스러우십니다. 당신은 저의 구주이시자 만인의 구주이십니다. 당신께 나아가 당신을 누리고 흡수합니다. 당신의 얼굴빛 안에 살고 당신의 집에 거하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구변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등을 전혀 상관하지 말라. 우리가 내적으로 이렇게 주님 자신을 흡수하고 주님 자신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의 교수님을 만나러 간다면, 이렇

때 말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흡수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한 말은 바로 우리가 흡수한 주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여호와 앞에 있으면서 사십 일 동안 밤낮으로 그분을 계속 흡수하기만 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올 때 별다른 것을 느끼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왜 그의 얼굴이 빛났는가? 하나님은 그를 위해 어떤 일을 하지 않으셨다. 모세는 다만 사십 일 동안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을 흡수했을 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주님으로 점유되었다. 사십 일 동안 밤낮으로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흡수했고 하나님으로 채워졌다. 그 결과 그의 얼굴이 빛났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보였을 때,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것도 말할 필요가 없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놀라운 점이다. 우리가 능력을 구할수록 능력은 우리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에 관해 잊어버리고 대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흡수하며 누린다면, 우리는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나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라기보다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제가 이곳에 가야 합니까, 아니면 저곳에 가야 합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동안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들이 맴돈다. 사실상 그들은 주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고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기도를 마치고서 선택지를 놓고 고려한 다음 어떤 선택지가 주님의 뜻과 인도에 따른 것인지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오, 만일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주님 자신을 접촉하고 흡수하며 누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이것이 지름길이며 빠른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흡수하고 충분히 누릴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분의 임재가 바로 그분의 인도이다. (하나님을 누리는 길, 2 장, 31-3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9년, 3 권, 시편에 계시되고 예표된 그리스도와 교회, 23 장

2022. 11. 21 ~ 2022. 11. 25

단체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1년, vol. 1, "인생의 의미와 올바른 헌신", 8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9년, 1권, 생 명 메시지 2, 57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69년, 3권, 시편에 계시되고 예표된 그리스도와 교회, 23장

찬송: 837 (英) 하나님 계획 찬미해 (中:603)

- 1 하나님 계획- 찬미-해 우리의 안에- 거하-서 우리가 주의- 처소- 돼 주 표현하게 하시-네.
- 2 주님의 형상- 주시-고 주님을 대표-케 하-려 우리를 지은- 하나-님 영과 혼 몸을 지었-네.
- 3 주 생명 영접-하는- 이 주님의 본성- 소유-해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한 몸 이루-네.
- 4 주 생명 흘러- 적서-저 혼 각 부분에- 스밀- 때
우린 진주 보-석 되-어 주 영광 형상 되겠-네.
- 5 감상을 위한- 것 아-닌 건축을 위한- 것이-니 주님의 영광- 집으-로 지어져 가게 하소-서.
- 6 우리 자신을- 바치-니 건축되도록- 하소-서 굴복케 하여- 연결-해 주 처소 되게 하소-서.
- 7 타고난 생명-과 성-격 온전히 깨뜨-리소-서 단독적인 것- 떠나-서 성도와 한 떡 되도-록.
- 8 이럴 때 주의- 배필- 돼 주님 자신을- 누리-며
안식 가운데- 거하-며 주 마음 만족케 하-리.

11/27 주일

아침의 누림**시 84:4-5**

4 주님의 집에 거주하는 이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셀라
5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이는 복이 있습니다.

시 145:2

2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무궁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시 146:2

2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가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시 22:3

3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좌정하신 분이십니다.

시 27:4

4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히 13:15

15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
제물, 곧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립시다.

빌 2:11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